

##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영 연합군의 승인 분석

문광건/전력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준호/전력발전연구센터 연구원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대이라크 전쟁에서 많은 군사전문가와 세계인의 예상을 깨고 최소의 군사적 비용으로 약 3주만에 후세인 독재정권을 전복시켜, 승리가 예정되었던 전쟁을 “깨끗이 마무리(smart victory)”하였다.

금번 전쟁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무기를 이용한 전술을 창출하여 새로운 전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일련의 군사전략, 무기체계, 전술 등의 절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기존 무기체계의 네트워크화와 야시장비를 이용한 야간의 지배와 동시성과 신속성 및 통합성으로 전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시킨 데에 있다. 이는 곧 ‘합동성’이 전장에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 서언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에 참전한 뒤 귀환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상에 전투기를 타고 착륙하여 사실상의 이라크전쟁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금번 전쟁의 특성은 최초의 실질적인 “정보전쟁”이자 “예방전쟁”이며, 또한 극단적인 비대칭전으로서 “자국민의 희생을 통하여서라도 정권을 지키려

이러한 군사적 위업은 Goldwater-Nichols 법안을 통한 군사개혁 이래 추구했던 “합동성”의 완성을 의미하며, 미군 지휘관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탁월한 기획력, 리더십 및 전투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결과이다.

미국이 최초로 공포한 “국가전략”의 핵심은 “적이 위협스러운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거부, 저지, 차단”하는 것을 “상식이자 자위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협의 싹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전에 행동’ 하는 선제공격 교리 즉 ‘부시독트린’에 있다.

는 독재자로부터 타국이 적국의 자유를 찾아주겠다는 전쟁”이자 실시간 TV 중계를 통한 전쟁의 명분을 추구했던 전략심리전으로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대이라크 전쟁에서 많은 군사전문가와 세계인의 예상을 깨고 최소의 군사적 비용으로 약 3주만에 후세인 독재정권을 전복시켜, 승리가 예정되었던 전쟁을 “깨끗이 마무리 (smart victory)”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위업은 Goldwater-Nichols 법안을 통한 군사개혁 이래 추구했던 “합동성(jointness)”의 완성을 의미하며, 미군 지휘관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탁월한 기획력, 리더십 및 전투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결과이다. 또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기존 무기체계의 네트워크화와 야시장비를 이용한 야간의 지배와 동시성과 신속성 및 통합성으로 전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시켰다.

금번 전쟁은 많은 점에서 새로운 미래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군사전략과 관련한 특징적인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전쟁 목적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이라크전이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무기력하게 테러에 대비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의 형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은 제2단계 대테러전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국이 최초로 공포한 “국가전략”의 핵심은 “적이 위협스러운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거부, 저지, 차단”하는 것을 “상식이자 자위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협의 싹(emerging threats)’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전에 행동” 하는 선제공격 교리 즉 “부시독트린”에 있다. 이것의 첫 시험대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이미 수개월에 걸친 대규모 전쟁준비로 물러설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와 달리 동맹의 결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양금으로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을 구상 중에 있다.

미국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지 않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통해 후세인을 축출하려는 속셈이 돈벌이가 되는 무기판매와 석유에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미국정부도 석유가 전쟁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하지만, 이는 단지 이라크와 이란이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테러리즘 지원에 쓰이기 때문이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는 테러 피해 규모에 대한 ‘단가’를 일거에 상승시켜, 일정한 규모 이하의 테러는 테러집단의 정치적 의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진 중동국가로서 이라크를 지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미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기회를 장악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추진해 왔던 대이라크 군사응징을 세계경찰로서의 독점적인 책임과 권위를 가진 완전한 세계제국(full-fledged global empire)으로서의 미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계획의 정점으로 보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반제국적 민주국가였던 미국은 냉전 이후 독점했던 세계 제국적 능력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세계질서에 무관심하였으나, “잉여능력”을 인도적이라는 형태로 무작위로 개입하였다. 그러던 중 ‘세계적인 이슬람제국’을 추구하는 알 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안보 영역확보를 위한 제국의 길로 무의식적으로 진출하였다.<sup>1)</sup> 그러나 “미제국”은 로마제국과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성격”의 제국으로서, 분산된 알 카에다 및 그 동조자를 제거하기 위해 130여 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해당국의 내정에도 관여하는 행태를 노정시켰다.

1) 역설적으로 알 카에다는 미국의 방만한 해외개입과 이로 인한 모가디슈 참패를 미국의 위협이자 약점으로 보고, 9·11 테러를 이슬람제국 건설의 계기로 하고자 감행하였다.

대이라크전의  
근본적인 목적도  
알 카에다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중동지역에서  
이라크를  
발판으로 하여,  
심리전과 세력의  
균형을 이용하여  
지역 국가들에게  
철저하고  
신속한 협력을  
요구하는 데 있다.

대이라크전의 근본적인 목적도 알 카에다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중동지역에서 이라크를 발판으로 하여, 심리전과 세력의 균형을 이용하여 지역 국가들에게 철저하고 신속한 협력을 요구하는 데 있다. 즉, 궁극적으로 기존의 비민주적인 지역적 정치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근원지를 제거하기 위해 그 대상 국가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심지어 이집트까지 묶어서 자유시장 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알 카에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복합체를 최종적으로 제압하려는 간접접근의 중동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시도에 대항하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 최대한 외교적인 방해 노력을 강화하여 전쟁 자체를 곤경으로 몰아 미국의 제국 건설 야심에 대한 장애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미국의 피아 이분법적 협력 요청을 대부분의 국가는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 사전전쟁을 통한 전장 준비

미국은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가상공간의  
잠재력을 전통적인  
작전에 통합시키는  
정보작전을 통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라크  
국민과 군대의  
항전의지를  
저하시키고  
전장이탈과  
쿠데타를  
추구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전쟁준비의 상당부분을 전쟁의 당위성을 세계각국에 동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인 한편 심리전을 통하여 이라크를 압박하였다. 우선 미국은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가상공간(Cyberspace)의 잠재력을 전통적인 작전에 통합시키는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을 통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라크 국민과 군대의 항전의지를 저하시키고 전장이탈과 쿠데타를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리전(pscyops)을 통해 e-mail로 군지휘관에게 항복, 명령거부, 쿠데타를 종용하였으며, 사실상 정규군은 전후 복구의 주요 핵심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회유하였다. 그리고, 전단(약 4,300만 매)과 소형라디오를 투하하여 대민심리전을 수행하였으며, 공군 특작부대는 EC-130E(Commando Solo)를 이용해 아랍어로 직접 회유 방송을 하였다. 또한, 정찰, 감시, 전파교란

및 감청용 EC-130H Compass Call과 RC-135 Rivet Joint를 투입하여 전자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심리전을 통한 ‘의도의 기습’ 효과를 추구하는 방식은 이미 1991년의 걸프전 이래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으며, 금번 이라크전쟁에서도 활용되었다.

걸프전쟁 당시 미국은 지상전이 임박하다는 인상을 유지하면서 39일간의 치열한 공중폭격으로 이라크 야전군의 초조와 긴장이 한계를 넘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에, 적진 한 가운데 공중작전기지(AOB Cobra)를 설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우회기동으로 단 100시간 만에 이라크군을 사지(Killing Box)로 몰아넣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뉴욕의 쌍둥이빌딩 붕괴보다 더 큰 극적인 장면으로 보복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특수부대의 유도를 받는 정밀유도폭격으로 카불의 탈레반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켰다.

금번 작전도 미국은 개전 48시간 동안 3,000여발의 정밀유도 무기를 사용하여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를 주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40여발의 토마호크 및 F-117 스텔스기로 이라크 지휘부를 기습하였다.

이에 앞서 미·영군은 Desert Fox 작전을 포함한 제1차 걸프전 이후, 남북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수행했던 “사전전쟁”으로 공중폭격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방공체제, 지대지 미사일기지 및 통제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이라크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또한 사전에 침투한 1만 여명 규모의 특수부대 및 CIA의 특수요원(SOG)으로 저항세력을 조직하고<sup>2)</sup>, 이라크군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직전에 파괴하거나 정밀타격, 공중강습부대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지휘통신망에 침투하여 심리전을 수행하는 한편 공격간에는 이를 절단시킴으로써 중앙집중식 집권화 통제체제의 이라크군을 각개 분리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특수부대는 유전과 댐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이라크군의 초토화전술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지역 내에 포진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약 10만 명의 지상군만으로 예정보다 1일 전에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 전술적 기습을

2) 이들은 주로 쿠르드족과의 연락망을 설치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형태의 '의도의 기습'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예고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기습을 전개할 수 없으며, 또한 공개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군사기술에 의한 기술적 기습도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군사력의 운용 차원에서 전쟁의 대원칙인 기습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구하고, 지상에서 고속으로 전진하여 '충격과 공포'라는 용어로 불 거리를 추구하는 전 세계 언론과 이라크 국민의 관심을 계속해서 바그다드에 묶어두어 심리전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초기 후세인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의 실패로 이라크 수뇌부의 전쟁결의를 고양시키고 TV 매체를 통한 이라크의 선전전략으로 고전을 하던 미군은 이라크 중앙방송을 폭격한 이후로 만회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형태의 '의도의 기습'을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예고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기습을 전개할 수 없으며, 또한 공개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군사기술에 의한 기술적 기습도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군사력의 운용 차원에서 전쟁의 대원칙인 기습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번 전쟁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량살상무기도 사용되지 않았던 점은 특수작전과 심리전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공지전격전

승리가 확실한 전쟁에서 4주 이상 장기화되거나 2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면 실패한 전쟁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극소화시켜야 하는 '깨끗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밀유도무기가 주로 사용(약 70%)되었으며, 재래식 폭탄은 주로 압도적인 제공권 하에 공화국수비대의 기갑표적에 대해 정확한 폭격으로 사용되었다.

지상에서 미·영군은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전통적인 군사작전의 형태를 탈피하고 마비를 추구하는 일종의 '전자적 전격전(Information Blitzkrieg)' 형태의 새로운 작전을 구사하였다. 독일 국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전격전과 다른 점은 국지적인 마비가 아니라 적의 정치지도부에 대한 직격으로 상대방 정치지도부를 최우선적으로 파괴시켜 모든 전쟁수행 잠재력의 신경을 끊

미·영군은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전통적인 군사작전의 형태를 탈피하고 마비를 추구하는 일종의 '전자적 전격전' 형태의 새로운 작전을 구사하였다.

어 전국적인 마비를 추구하였던 점이다.

이는 오늘날의 군사 유행어처럼 되어있는 C4ISR의 필수도구인 우주전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컴퓨터(Computer)와 통신(Communication)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전장관리체제(ISR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의 운용으로 전투력을 지휘(Command)하고 통제(Control)하여 전투력 승수를 수십 배로 배가시키는 기본적인 수단, 즉 적을 발견하고, 전투력을 이동시키고, 정밀타격으로 물리적인 마비를 추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군사위성과 통신위성이다. 이러한 우주력을 이용한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번 전쟁에서 공전의 규모로 완벽한 C4ISR 능력으로 이라크군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숨을 곳이 없었는데, 이러한 능력을 제공한 자산으로는 군사위성 외에도 U-2, E-8C Joint STARS, E-3D 조기경보기(AWACS) 및 RC-135(Rivet Joint)를 비롯하여, 고공비행의 RQ-4A(Global Hawk)로부터 미 해병대의 휴대용 수색무인기인 Dragon Eye까지 포함한 다양한 무인기(UAV)가 운용되었다. 이런 가운데 폭격기의 공격시간은 표적탐지에서 작전협조, 정밀폭탄투하까지 약 12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A-10기 등 공군 전술기로 도시지역에서의 근접항공지원(CAS)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선도적인 전투발전 및 운용상의 융통성

미국인의 융통성 있고 신속한 전투발전 절차도 이에 한 몫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140만 명이라는 결코 많지 않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특히 약 40만 명의 기동전력으로 전세계에 걸친 각종 분쟁에 계속 개입하였는데, 냉전의 종식 이후 오늘까지 참여한 분쟁이 크고 작은 것 모두 합쳐 6개나 된다.

미국은 군사력의 월등한 우위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의 핵심이 합동군사령부(JFCOM)로서 계속되는 분쟁에서 획득한 교훈과 새로운 군사 기술을 적용하고, 미래적 분쟁을 예측한 시뮬레이션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전투발전을 하고 있다. 과거 독일군

적을 발견하고, 전투력을 이동시키고, 정밀타격으로 물리적인 마비를 추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군사위성과 통신위성이다. 이러한 우주력을 이용한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의 월등한 우위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의 핵심이 합동군사령부로서 계속되는 분쟁에서 획득한 교훈과 새로운 군사 기술을 적용하고, 미래적 분쟁을 예측한 시뮬레이션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전투발전을 하고 있다.

장교가 미국에 패전한 이유가 미국이 야전교범(FM)에 쓰인대로 싸우지 않아서 졌다는 불평(?)은 미국적 융통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이다.

금번 작전은 이러한 융통성이 한층 더 돋보였다. 예를 들어 터키의 기지 사용거부로 최초 공격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미군은 제4사단 대신 이태리의 전략적 허브지역에 위치했던 제173공정여단과 지중해의 제26해병원정대(MEU)를 편제 헬기와 C-130을 이용하여 직접 목표로 이동,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투입하여 북부지역에 배치되었던 이라크군을 견제하였다. 또한 지상군은 예상치 못한 페다인 민병대의 기습과 도시장악으로 최초계획이 좌절되었으나 도시를 우회하여 바그다드로 직행하여 오히려 상대방의 바그다드 시가전 준비시간을 박탈하였으며, 바그다드에 대한 현지부대의 위력수색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고 곧바로 진입한 것 등이다.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술 창출

미국은 작전 개시 이전까지의 선전과는 달리 첨단무기보다는 네트워크화된 재래식 무기를 주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는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기존 전투력의 6~10배를 발휘하여 새로운 전술이 도출되었다.

미국은 작전 개시 이전까지의 선전과는 달리 첨단무기보다는 네트워크화된 재래식 무기를 주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는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기존 전투력의 6~10배를 발휘하여 새로운 전술이 도출되었다. 즉, 미국은 지상전에서 과거와 같이 전투부대(teeth)가 전진하면서 그 뒤를 보급부대(tail)가 후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투부대와 보급부대가 함께 전진하면서 속전속결을 위해 포함되지 않은 표적은 우회하며, 중요 표적은 광정면에 분산된 특수부대, 전투부대 및 정밀무기가 일거에 덮치는 ‘벌떼 전술(swarm tactic)’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에서의 개인화기는 소총이 아니라 퍼스컴이 기본 휴대장비이다.

전투수행 네트워크에는 “잼(jab)”과 “스웜(swarm)”의 두 가지 공격 모드가 있다. 둘 사이의 차이는 IT 기술이 무기 속에 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조직 속에 심어져 있는가에 있으나 결국은 정보네

3) 주로 B-52, A-10, F-16, M-1 등 이다.

트위크(information network)가 핵심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기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것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인 “잽”은 하나의 전투기에서 “정밀유도폭탄”을 사용하여 어떤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스윙”은 수많은 전투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떼처럼 덩벼들어 쏘고는 사라지는” 방법이다.

두 가지 공격 모드가 한결같이 IT 기술을 동원하여, 인공위성이 표적을 찾아내고, 위성통신으로 표적 위치를 알려주면, GPS 유도장치 또는 레이저 광선 유도장치를 탑재한 스마트 무기가 표적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아군끼리 연락을 취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 갑자기 여러 곳에서 나타나 치고는 빠지는 작전 등은 모두가 정보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가 바탕에 내재하고 있다.

금번 전쟁의 핵심전술인 이러한 ‘벌떼 전술’은 과도한 병참선 신장으로 이라크군의 비정규적 기습에 노출되어 한때나마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전세계 여론의 의문을 초래하였다<sup>4)</sup>. 그러나 미군은 일관적이고도 단호하게 계획을 추진하였다. 즉, 도시지역을 우회하여 바그다드로 기계화부대를 급진시켜 이라크군의 균형을 와해시킴으로써 시가전 및 대량살상무기 운용 준비 시간을 박탈하였다. 그동안 시가전에서의 근접항공지원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통념과는 달리 정보네트워크 및 정밀항공폭격이 제공되어짐으로써 기갑부대의 시가전도 가능하게 되었다.

금번 전쟁의  
핵심전술인  
이러한  
‘벌떼 전술’은  
과도한 병참선  
신장으로  
이라크군의  
비정규적 기습에  
노출되어  
한때나마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전세계  
여론의 의문을  
초래하였다.

## 결언

금번 전쟁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첨단무기를 이용한 전술을 창출하여 새로운 전쟁을 수

4) 이를 계기로 병참선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 미해병은 전투근무지원 병력 4,000명이 전투부대와 동반하였으며, 미육군은 이들 부대에 대한 호송대의 규모를 조정하고 장갑화 등을 고려하였다.

일련의 군사전략, 무기체계, 전술 등의 절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일련의 군사전략, 무기체계, 전술 등의 절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개전 초기 세계 주요 언론들은 전쟁에서 사용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해 경쟁적으로 소개하고 관심이 높았으나 실제로는 재래식 무기가 여전히 상당수 사용되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재래식 무기가 IT 기술, 즉 첨단 C4ISR과 결합되면서 네트워크화되어 그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전에서 검증되어 온 무기체계를 더 효율화된 형태로 변모시켜 사용함으로써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고가인 최첨단 무기체계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술 개념도 발전하여 과거의 공군 근접항공지원 후에 지상군이 기동하던 전술에서 정밀유도무기의 운용 및 근접항공지원과 동시에 지상군의 기동이 이루어졌다. 즉, 육·해·공군 모두가 적시적소에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체화 작전을 감행하는 동시성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언급한 ‘합동성’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육·해·공군이 단순히 서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의존하는 단계에 와 있다.

아울러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체계는 고가의 장비로서 그것을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다수의 우수한 예비역들을 전쟁에 동원하였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견지한 인재 발굴과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밖에 없다. 또한, 최첨단 무기들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기능은 정보전의 수행 능력에 있었다. 즉, 최첨단 무기는 “최첨단”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야 제 기능을 발휘하여 전투력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本誌에 실린 內容은 執筆者的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